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22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코스피200 커버드콜 액티브, 코스피 액티브

신규 상장 ETF(6/23)

- PLUS 200 커버드콜 액티브, IBK 코스피 액티브

PLUS 200 커버드콜 액티브: 국내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액티브 커버드콜 ETF이다. 코스피200 기업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주식 포지션을 구축하고, 커버드콜 전략 중심의 액티브 운용방식이 활용되는 ETF 종목이 되겠다.

비교지수는 '코스피200 위클리 고정 30% 커버드콜 지수'로 설정하고 있으나, 액티브 ETF인 만큼 커버드콜 포지션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한다. 상승장에서는 커버드콜 전략 비중을 축소하거나 만기가 먼 옵션을 활용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행사가가 높은 옵션을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용되는 등의 형태이다. 데일리 옵션이 거래되기 시작할 경우 옵션 만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분배금 수익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된다.

국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 차익은 비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마찬가지로 옵션 매도 포지션의 프리미엄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 배당금의 경우, 배당락 직전에 주식을 팔았다가 배당락 직후에 재매수하여 최대한 비과세 차익을 확보하는 방식도 함께 활용한다. 정기적인 월 배당을 추구하는 ETF 종목이다. 총 보수는 0.491%이다.

IBK 코스피 액티브: 국내 주식시장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 지수 기반의 액티브 ETF이다. 6월 현재 830여개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코스피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상관계수 0.7의 조건을 유지하는 액티브 운용 방식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신규 상장종목의 경우에는 상장 후 1거래일이 경과한 후에 편입(코스닥에서 이전 상장은 당일 편입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을 반영하며,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비중을 결정한다. 0.415%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ETF이다.

도표 1. PLUS 200 커버드콜 액티브, IBK 코스피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IBK 코스피액티브
상장일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비교지수	코스피 200 위클리 고정 30% 커버드콜 지수	코스피 지수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491%	0.415%
구성종목 수	- 주식 : 200종목 - 옵션 : 2종목	835종목('26.5월말 기준)
비중결정방식	- 코스피 200 지수: 유동주식수 가중 시중방식 - 코스피 200 위클리 고정 30% 커버드콜 지수: 코스피 200 보유+매주 자산 30% 콜옵션 매도	시가총액 가중방식
정기변경	- 코스피 200 지수: KOSPI 200 선물시장 6월, 12월 결제월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 코스피 200 콜옵션: 매주	해당사항 없음

자료: KRX, 하나증권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